



보도시점 2026. 1. 15.(목) 11:00

배포 2026. 1. 15.(목) 09:00

농식품부, 제1차 「할랄식품 수출지원 협의체」로 K-할랄식품 글로벌 진출 확대 시동

- 관계부처, 수출 지원기관, 할랄 인증기관 및 수출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기관별 2026년 수출 지원 전략/계획을 공유하고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 모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15일(목) 오후,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수출 지원기관, 할랄식품 인증기관, 수출기업*과 함께 제1차 「할랄식품 수출지원 협의체」(이하 할랄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CJ제일제당, 삼양식품, 삼양스파이스, 농심, 대상, 매일유업, 한국인삼공사, 신세계푸드, 한우물, 웅고집영농조합법인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케이(K)-푸드의 글로벌 할랄식품 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할랄 협의체에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외에도 할랄 인증기관, 협회, 수출기업이 참여하며, 향후 할랄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다섯 번째 전략이었던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전략(Expand global market reach)’에 대해 할랄 협의체 등의 지원체계를 비롯하여 인증 비용 부담 완화, 해외 물류 인프라 확충,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CES Food DB)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중동 수출국의 식품 규제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중동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에서는 2026년 할랄식품에 대한 주요 수출 지원계획을 공유한다. 한국식품연구원은 할랄 인증 취득에 필요한 성분 분석을 지원하고, 인증 적합 원료 선정부터 인증 취득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는 수출기획단에서 선정된 전략품목을 글로벌 차세대(NEXT) K-푸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육성하고 할랄 식품박람회 참가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K-할랄식품 페어와 온라인 K-할랄식품 전용관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두바이 한류박람회 참여 할랄 식품기업을 지원하고, 카타르 시장 진출을 위한 대형 오프라인 판촉 및 기업의 쇼케이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해외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컨설팅과 수출국 맞춤형 제품개발, 시제품 생산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할랄 인증기관과 수출기업은 할랄인증 현황과 인증 확대 계획 또는 할랄 인증 식품 수출계획을 공유하고 관계부처 및 참여 유관기관과 할랄 식품의 글로벌 진출 확대 관련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해 이슬람협력기구(OIC) 57개 국가로 수출한 할랄식품 수출액은 11.9억불로 전년 대비 7.8%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농식품 수출액의 11.4%를 차지한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할랄식품 시장은 5년간(’23~’28년) 연평균 6.2% 성장이 전망되는 바, 금번 할랄 협의체 첫 회의를 계기로 앞으로도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소하여 K-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강효주 (044-201-2171)
		담당자	사무관	김태규 (044-201-2179)